

컬처박스

축구팬을 '멘붕' 시킨 불편한 진실



●THE FIX 승부조작의 진실 (테클란 힐저·이원재 옮김 | 다람)
지금까지 수 많은 축구경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어떤 것인가. 경기장을 울리는 뜨거운 함성,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땀방울, 승리의 노래와 패배의 눈물. 하지만 그 경기가 조작되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경기 전에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있었고, 당신이 본 경기는 정해진 각본에 의한 연기였다면?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 사회학박사이자 탐사보도전문가인 테클란 힐이 수년간 승부조작을 조사한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승부를 조작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아시아의 작은 리그부터 유럽 최고의 리그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조작해 왔는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은 과연 안전한가.
첫 출간 이후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 주목했고, 21개국 언어로 번역돼 세계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트린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여행 고수 16인이 자랑하는 길



●대한민국 다시 걷고 싶은 길 (한국여행작가협회 지음 | 예담)
우리나라의 큰 길부터 작은 길까지 여행 고수 16인이 자랑하는 길. 전국을 살살이 누비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적으로 알려 준 여행작가들이 두 발로 쓴 책이다. 2009년 '대한민국 걷고 싶은 길 111'에 이은 후속작이다. 전국 각지의 숨은 길과 함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새롭게 조성한 길들을 소개한다. 양형모 기자

경제브리핑

●코리아나화장품 '잡자는 숲속의 공주' 이벤트
코리아나화장품이 대표 브랜드 라비다의 론칭 2주년을 기념해 '잡자는 숲속의 공주'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참여는 6월5일까지 라비다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thelavida)과 친구를 맺은 후 라비다 숲 속의 공주에 어울리는 페이스북 내 본인 사진을 선택하고, 이 사진이 등장하는 마녀, 요정, 난쟁이 역할에 어울리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면 완료된다. 당첨자는 6월13일 페이스북에서 발표한다. 라비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파워셀 에센스 정품을 1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쿠팡,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캄씨' 인수

쿠팡은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캄씨(CalmSea)'를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캄씨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등 독자적 기술 노하우와 서비스를 보유한 글로벌 기술기업이다. 디즈니와 푸마, 레노보, 바클레이 카드 등이 고객사다. 쿠팡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캄씨를 쿠팡 미국 사무실로 전환한다.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 현지로 가서 개발자와 직접 교류하고, 세계 기술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캄씨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짐 다이는 쿠팡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됐다.

혼다, 럭셔리 스쿠터 'All New PCX' 출시



혼다코리아가 15일 럭셔리 스쿠터 'All New PCX(사진)'를 출시했다. 125cc 엔진을 탑재하고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적용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54.1km/L)를 낸다. 다양한 편의사양도 추가했다. 중앙 계기반은 LCD 화면을 채택해 시간, 주행거리, 평균 연비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또렷하게 제공한다. 스마트폰 등 기기충전이 가능한 AC소켓도 장착했다. All New PCX는 화이트, 블랙, 브론즈메탈릭 3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가격은 395만원(부가세 포함)이다.

부고

▶박동훈(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동행(인하대 교수)·동현(인하대 교수)씨 부친상= 15일 서울 아산병원 3층 30호,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연락처 02-3010-2230

양행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연극 M. 버터플라이

두 남자의 치명적 사랑
충격 반전에 등골 오싹

1986년 프랑스 세기의 재판 모티브

이석준의 소름 끼치는 완벽한 연기
김다현의 남녀 오가는 중성적 매력
불꽃 튀는 연기대결 보는 맛도 쏠쏠

팬들 사이에서 '엠나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연극 M. 버터플라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M. 버터플라이는 1986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을 모티브로 한 연극이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재판에서 외교관 출신인 버나드 브루시코와 그의 연인 슈 페이푸는 기밀 유출 혐의로 각각 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세기의 연인은 남녀가 아닌 '남남' 커플이다. 요즘 세상에 남남 커플이 세계적인 화제가 될 만한 일일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나드 브루시코는 재판장에서 "나는 슈 페이푸가 여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 슈 페이푸는 "1964년 처음 서로 만났을 때 나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관과 경극배우로 만나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 아들(훗날 슈 페이푸가 3000위안을 주고 데려온 아이인이 밝혀진다)까지 두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증언은 재판 결과 이상으로 세인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두 배우의 불꽃 대결...마지막 충격적인 장면에 등골소름

M. 버터플라이는 이 기괴한 커플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다. 중국계 미국인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대표작이다. 1988년 미국 워싱턴에서 초연됐으며, 이후 뉴욕 유니온스퀘어에서 777회 연속 공연됐다. 이는 아마테우스

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최장기 공연기록을 깬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에 연극열전4의 두 번째 작품으로 첫 선을 보였다.

이 만만치 않은 연극을 관람하는 포인트는 역시 두 배우의 연기에 있다. 버나드 브루시코와 슈 페이푸는 극중에서 르네 갈리마르와 송 릴링으로 이름이 바뀐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겪고, 스파이가 되고, 마침내 재판을 받기까지 운명과 시간의 수레바퀴가 숨 거뒀게 굴러간다.

르네 갈리마르를 맡은 이석준의 연기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른 느낌이다. 짜질하면서도 처연한 사랑,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몸부림치는 르네 갈리마르의 내면을 섬세하면서도 '독하게' 표현했다. 오페라 나비부인을 차용한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다. 긴 독백을 남기며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해가는 이석준의 연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남자와 여자를 오가는 김다현(송 릴링)은 이석준의 원숙한 연기에 한 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듯 시퍼런 불꽃을 튀긴다. '꽃다현'으로 불리는 미모(?)로만 승부하지 않겠다는 의욕이 느껴진다. 자칫 과장될 위험이 있는 여성스러움보다는 신비감을 장착한 중성적인 매력에 중점을 둔 것도 좋았다. 관객은 '김다현'을 보러 갔다가 '송 릴링'을 품고 나오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에필로그 한 토막. 실존인물인 이들 커플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두 사람은 사면된 이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을 뿐 직접 만난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 페이푸는 '중국판 마타하리'라는, 세상이 자신에게 덮여찍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TV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버나드 브루시코는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살았다는 후문이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1986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을 소재로 한 연극 M. 버터플라이는 두 남자 배우의 팽팽한 연기호흡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연인이었던 송 릴링(오른쪽 김다현 분)이 남자였음을 알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눈을 감고 촉감에 의지해 다시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르네 갈리마르(이석준 분). 사진제공 | 연극열전



펜슬 아이스크림 경쟁 "설레임 잡아라"

롯데제과 '설레임' 10억개 판매 부동의 1위 한국아쿠르트 '얼려먹는 세븐' 등 거센 추격

펜슬 형태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 기준 2300억원대(전체 아이스크림 시장 중 14.2%) 규모를 형성하며 매년 5%대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아이스크림 펜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제품 경쟁도 뜨겁다.

'펜슬'이라는 명칭은 제품의 빨아먹는 부분이 연필 뒤의 지우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설레임', '요맘때', '얼려먹는 세븐' 등 아이스크림 펜슬 시장의 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봤다.

한국아쿠르트는 '얼려먹는 세븐' 시리즈를 다양화했다. 최근에는 기존 요거트노우, 베리노우 2종의 '얼려먹는 세븐' 외에 허니 망고 맛을 새롭게 선보였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예년보다 일찍 어린이들이 빙과류를 찾는 데다 '얼려먹는 세븐'의 맛의 다양화 전략과 맞물려 최근 수요가 급상승 중이다. 3월 일평균 7800개 수준에 머물렀던 수량이 5월 들어서는 5만6000여개로 일 평균 수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장 건강까지 생각했다. 색소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 않아 여름철 빙과류 섭취가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빙그레는 국내 최초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인 '요맘때' 출시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콘셉트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친숙한 바 타입에서부터 펜슬, 컵, 콘 타입 아이스크림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프로존 요거트 라인업을 구축했다. 여기에 최대 100억 마리가 살아있는 유산균을 함유해 요거트 본연의 건강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단단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펜슬시장 부동의 1위인 롯데제과의 '설레임'은 지난해 출시 10년째를 맞아 10억 개가 판매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바나나맛, 밀크, 커피, 쿠키앤크림 등 4종으로 맛을 다양화한 것과 아이스크림 펜슬포장 입구에 열고 잠그기 쉬운 마개를 부착해 적정량을 편리하게 따먹을 수 있게 하는 등 휴대성과 보관성을 살린 것이 인기 비결로 보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경실련 "라면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유전자변형식품)

인체 유해 논란...유럽은 이미 표시 의무화

인체 유해 논란을 빚어온 유전자변형식품(GMO)이 국내에 판매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 사용 여부가 표시 안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시중에 판매되는 9개 업체의 94개 제품을 대상으로 GMO 표시실태 조사를 해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두(콩)나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한 93개 제품 모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GMO를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해외로 수출한 국내 가공식품 중에 GMO 사용이 확인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터키로 수출된 '삼양라면'이 현지 검사에서 '제품에 포함된 대두의 69%가 GMO'라는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된 적이 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고, 수출용 라면에는 GMO가 사용된 게 확인됐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포함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MO 문제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GMO완전표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



홀랄라가 최근 서울 신촌에 오픈한 치킨카페 직영점. 젊은층을 겨냥한 유티피안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개장 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 홀랄라

홀랄라, 신촌에 '치킨카페 3호점' 오픈

바베큐치킨·커피 등 판매...젊은 층에 인기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홀랄라가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에 새로운 콘셉트의 치킨카페를 오픈했다. 서울대입구역, 정자점에 이은 3호 치킨카페 직영점이다. 커피부터 바베큐치킨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기존 치킨전문점들이 맥주와 치킨 위주의 메뉴 구성에 그쳤다면 치킨카페에서는 바베큐치킨, 커피, 돈가스 등 다양한 외식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참숯바베큐치킨이다. 참숯의 담백한 맛과 피로회복에 좋은 해물을 활용해 건강과 입맛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고구마, 치즈, 소시지 등으로 만든 바베큐 메뉴도 인기

다. 유티피안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도입하고 독립된 공간을 연출했다는 점도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점심 세트 메뉴를 판매해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새로운 외식 공간을 제공한다. (주)홀랄라 관계자는 "치킨카페 신촌점 오픈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더욱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요상권으로 확장을 홀랄라만의 치맥문화와 외식문화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홀랄라는 1999년 설립 이래 15년간 국내 외식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다. 대표 브랜드인 홀랄라참숯바베큐를 비롯해 커피, 족발, 피자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